

식품포장용 랩 DEHA 검출 “파문”

삼영 · 희성화학 포함 5사 사용시인 ... LG생활건강은 대체 신소재 적용

음식점이나 할인매장 등에서 흔히 쓰이는 업소용 식품포장 랩 대부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면서 해당 화학기업들이 큰 질타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음식점과 대형할인점, 유통기업 식품매장 등에서 쓰이는 업소용 식품포장 랩 6종을 수거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LG생활건강의 제품 1개를 제외하고 모두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DEHA(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가 검출됐다고 9월14일 발표했다.

검출된 DEHA의 양은 중량 기준 23.7-25.9%로 제품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DEHA는 주로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PVC(Polyvinyl Chloride) 재질의 비닐랩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첨가된다.

DEHA의 인체 유해성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세계야생생물보호기금(WWF), 일본 후생성, 미국 환경청(EPA) 등이 환경호르몬 혹은 이에 준하는 추정물질로 분류했으며 국내에서도 환경부가 내분비계장애물질 관찰대상으로 분류해 환경잔류 실태와 생태영향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DEHA가 검출된 업소용 랩은 삼영화학공업의 <썬랩>, 테이팩스의 <유니랩>, 신홍화학이 제조하고 CJ푸드시스템이 유통판매하는 <이츠웰랩>, 희성화학이 제조하고 롯데알미늄이 공급판매하는 <롯데랩>, 파워랩의 <파워랩> 등이었다.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LG생활건강의 <LG럭키랩>이 유일했는데, DEHA 대신 대체 신소재를 가소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랩 제품은 가소제를 첨가할 필요가 없는 PE(Polyethylene)을 주 원료로 쓰고 있으나 PVC가 사용되는 업소용 랩은 여전히 가소제를 사용하고 있다.

가정용 랩은 대부분 음식을 냉장고에 넣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사용하므로 음식이 랩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고 PE가 주 원료여서 가소제 용출위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업소용 랩은 음식 배달시 뜨거운 음식에 직접 접촉하는 사례가 많아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VC 랩은 식품용기에 랩이 늘어지지 않고 밀착되게 하기 위해 가소제를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외자료를 검토하면 외국에서도 PVC 랩에는 가소제로 DEHA가 10-60% 첨가되는 것으로 돼 있어 통상비율은 약 35%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시행한 1999년 국내 실태조사에서도 7개 제품에서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가소제가 검출된 바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DEHA가 검출된 해당기업들이 가소제 사용 사실을 시인

했으며, DEHA를 가소제로 첨가하지 않은 제품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왜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랩이 업소용으로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DEHA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EBN이라는 신소재를 사용했으며 다른 PVC 랩 생산기업들도 물성, 신축성 등에 대한 시험이 끝나는 대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4/09/15>

업소용 식품포장 랩의 환경호르몬 검출현황

제품명	제조기업	검출량(%)
썬 랩	삼영화학	23.8
LG럭키랩	LG생활건강	0
유니랩	테이팩스	23.7
이츠웰랩	신홍화학/CJ Food System	24.6
롯데랩	희성화학/롯데알미늄	23.8
파워랩	파워랩	25.9